

## LG전자 시네빔 신제품 출시

LG전자가 'LG 시네빔' 프로젝터 신제품을 출시한다. 신제품(PF610P)은 최대 120인치 화면에 풀HD(1920x1080) 해상도를 갖는다. 1.7kg으로 휴대성도 뛰어나다. 또 화면 모양 왜곡을 손쉽게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촛불 1000개를 동시에 켜둘 때와 유사한 1000안시루멘 수준의 밝기를 갖는다. 15만 대 1 명량비로 시인성도 뛰어나다. 99만 원.



“남양이 남양했네” 누리꾼들 비판 이어지는 이유는

## 남양유업 매각 무산...소비자 신뢰 또 잃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계약해제 통보 한앤컴퍼니도 소송 제기한 상황 남양 기업 이미지·신뢰 훼손 불가피 누리꾼들, 불매운동 불붙을 수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일명 '불가리스 사태(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 사실 발표)'가 야기한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과 그의 일가가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를 3107억 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홍 회장 “한앤코 탓” vs 한앤코 “사실 무근”**  
홍 회장이 1일 내세운 주식매매계약 해제 이유는 한앤코의 합의사항 이행 거부, 비밀유지의무 위반,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 등이다. 홍 회장은 “57년을 일궈온 남양유업을 쉽게 팔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며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확고하다. 매수인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되면서 오너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한앤코 측도 입장문을 내고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원이 한앤코가 신청한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홍 회장이 한앤코 외에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넘길 길이 막히게 되면서 한앤코가 기선을 제압한 모양새다.

한앤코 측은 쟁점으로 떠오른 사전 합의사항에 대해 “홍 회장 측이 본 계약 발표 후 수용 곤란한 부탁을 해왔고,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선결 조건, 쟁점으로 떠오라**  
홍 회장 측은 계약 체결 전 합의된 사항에 대해 한앤코가 이행을 거부했다는

주장인 반면, 한앤코는 계약 체결 이후 홍 회장이 무리한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결국 법정 공방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항소 소송에서도 선결 조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백미당의 사업분할 및 오너 일가족의 남양유업 내 지위 보장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돈 유용 의혹으로 4월 보직 해임된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를 매각 발표 하루 전인 5월 26일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복직시키고, 차남인 홍병석 외식 사업본부장을 같은 날 미등기 임원(상무보)으로 승진시킨 만큼 이들을 위한 사업체 분할 또는 지위 보장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수 금액 외 추가적인 금액 요구가 선결조건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 회사 매각이 성난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쫓기

듯이 진행된 탓에 3107억 원이라는 매각가가 오너가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싸늘한 소비자들, 불매운동 다시 일어나**  
남양유업 매각이 무산되면서 홍 회장 등 오너가를 향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1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양이 남양했네”, “남양스럽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매각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최악의 기업”, “이제는 별로 놀랄지도 않다” 등 종종 섞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유기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기업 지분을 놓고 사주와 사모펀드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지 훼손과 시장 신뢰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홍 회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월 4일 홍 회장 본인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회장직 사퇴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공식된 남양유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사퇴를 공언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상반기 보수로 8억 8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 추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재점화 가능성도 거론돼 실적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가에도 반영돼 이날 남양유업 주가는 전일 대비 1만 8000원(3.198%) 내린 54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정호 기자 jay@donga.com

##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세계 첫 '구글갑질' 방지법 31일 본회의 통과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횡포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부과 등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10월부터 변경된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및 콘텐츠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시작으로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이미 유사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선 8월 11일 상원에 활성 이용자수 5000만 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 그랜드코리아레저, 김영산 신임 사장 취임



게임업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신임 사장으로 김영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부회장(사진)이 1일자로 취임했다. 김영산 신임 사장은 8월 20일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후보자로 선임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통해 취임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영산 사장은 행정고시 31기 출신으로 미국 LA한국문화원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8월 31일 2020~2021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3일 실시되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올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임단협은 하루(여름철 노동계 연계 투쟁) 없이 모두 마무리된다.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1년 넘게 협상해온 르노삼성차 노사는 생존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한편 현대차는 7월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고, 기아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금 협상에 성공했다. 한국지엠은 8월 24일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쌍용차는 12년 연속 무파업을 기록 중이다.

## 현대중공업, 영국 법복과 '방산 동맹' 강화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사진제공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해양방위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의 법복과 국내 최초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산 법복코리아 한국지사에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 현대중공업 남상훈 특수선본부장, 법복 존 하위 그룹총괄 CEO,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법복과 손잡고 합정설계의 첫 번째 단계인 개념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경형 SUV '캐스퍼(CASPER)'. 사진제공 | 현대차

## MZ세대 사로잡는다...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 외장 이미지 최초 공개

경차 규격에 SUV 스타일 더해 기본·액티브 두 가지 트림 출시

경차와 소형 SUV 사이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현대차가 1일 선보인 경형 SUV 모델인 '캐스퍼(CASPER)'가 주인공이다.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캐스퍼는 기존 현대차 라인업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 경차의 규격에 맞추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MZ취향

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빈틈없이 꽉찬 SUV 스타일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현대차는 차명 '캐스퍼'에 대해 “스케이트보드를 뒤집어 차지하는 ‘캐스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새로운 차급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바꾸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캐스퍼는 전장 3595mm, 휠베이스 2400mm, 전폭 1595mm, 전고 1575mm로 1.0 MPI가 탑재된 기본 모델과 1.0 T-GDI가 탑재된 액티브 모델(터보 모

델)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기아 레이(전고 1700mm)보다 전고는 조금 낮고 전장은 동일하다.

디자인은 국내 경차 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다. 도로 위 의 패션 아이콘이라 불리는 글로벌 소형차 브랜드 미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전면부 디자인이 특히 압권이다. 상단에 턴 시그널 램프, 하단에 아이코닉한 원형 LED 주간주행등을 배치한 분리형 레이아웃과 미래지향적인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 넓은 스킵 플레이트 적용 등을 통

해 캐스퍼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볼륨감이 돋보이는 펜더(휠 아치)와 높은 지상고로 작지만 SUV 모델임을 강조했다. 후면부에는 좌·우 폭을 키운 와이드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이삼업 현대차 디자인담당 전무는 “캐스퍼는 개성과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타겟으로 디자인된 차량이며 세대간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엔트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